

# 관광·제조 투트랙... 부산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나선다

50억 투입, 820명 신규 고용 목표  
자치단체로 이관, 지자체 직접 기획  
기업 성장·고용 확대 선순환 기대

부산시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시비 포함 총 50억원을 투입해 관광·마이스와 제조업 등 부산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가 선순환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총 10개 세부 사업을 통해 82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중앙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일부 유형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역 산업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먼저 관광·마이스 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인력 유입 확대와 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산 관광·마이스업계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마이스



'2026 해운선사 해기사 취업박람회'가 열린 1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선사의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300만원의 정착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부산 관광·마이스 3UP 프로젝트'와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3UP 프로젝트는 재직자의 복지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인당 450만원(기업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고, 그로우업 지원 사업은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및 신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신규 채용 1인당

800만원(기업당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숙련 인력의 고용 안정과 산업 전환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기계·부품·철강산업 숙련기술자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숙련기술자의 이·전직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장려금 750만원과 근로자 인센티브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제조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뿌리·철강산업 좋은 일터 조성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신규 채용 1인당 1000만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산업 고용친화·일터환경 혁신사업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채용 1인당 1000만원(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조 유망기업 판로개척 스케일업 지원 사업, 제조산업 산업전환 혁신성장 지원 사업, 조선기자재산업 고용·기술혁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판로 확대,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과 연계해 1인당 1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광·마이스와 제조산업 등 부산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가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포항시

#### 경북 로봇산업 산·연·관 선포식

포항시가 경북도와 구미시, 지역 로봇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포항시는 16일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경북 로봇산업 발전 산·연·관 공동선포식'을 열고 경북권 로봇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거제시

#### '이륜차 전국 번호판' 시행

거제시는 이륜 자동차 번호판이 오는 20일부터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현행 이륜 자동차 번호판에는 지역명이 표기돼 있지만, 이날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일 체계로 개편된다. 새 번호판은 크기가 가로 210mm, 세로 150mm로 기존보다 커지고, 글자 색도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다. 시인성이 높아져 야간이나 원거리에 서도 번호 식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이륜 자동차는 전국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책 돌려주면 환급... 경북, 서점 살리기

### 지역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 이용 늘리고 독서 문화 확산

경북도가 침체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를 구매한 뒤 반납하면 금액을 환급해 주는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역 서점 이용을 늘리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지역상품권이나 도서교환권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돼 '구매·독서·반납·기증'으로 이어지는 독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안동시와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등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환급 금액을 상향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도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만 14세 이상 경북도민이며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참여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도서를 구매한 뒤 12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해 참여 서점이나 시군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참고서와 교과서, 잡지 등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운영 사항은 시군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16일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준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준공

### 동해안 해양문화 관광 거점 조성

경주시가 문무대왕의 호국정신과 해양정신을 기리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조성하고 동해안 해양 역사문화 거점 조성에 나섰다.

경주시는 16일 오전 감포읍 대본리 옛 대본초등학교 부지에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도·시의원을 비롯해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역사관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준공식은 신라고취대와 경주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준공 퍼포먼스, 기념촬영,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프랑스 명장셰프 180명, 강진서 미식 체험

강진군, MCF 초청 전통 문화행사

세계적인 요리사 단체인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셰프 180여명이 강진을 방문한다.

강진군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6년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초청 전통미식·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이 하나로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 서울총회 참석차 방한한 셰프들을 전라남도로 초청한 일정 중 강진을 찾아 지역의 전통 음식과 청자, 민화, 다도 등 강진

의 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실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하루 60여명씩 총 180여명의 프랑스 셰프와 관계자들이 강진을 방문한다.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 소속 셰프들은 방문기간 중 백운동 원림과 다도체험, 한정식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쌀귀리, 된장 고추장, 표고버섯 등 강진산 식자재의 활용 또는 구매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민화체험과 물품구매에 이어 고려청자 판매장을 방문해 강진청자의 식기 활용 및 구매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동남권 中企 'AI 전환' 협력 체계 구축

### 울산과학기술원-중진공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동남권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UNIST는 16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중진공과 'AI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산업 AI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UNIST의 교육·연구 역량과 중진공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결합해 현장 활용 가능한 AI 인재

를 키우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초 실무 교육부터 심화 연구, 학위 과정까지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UNIST는 노바투스 아카데미와 AI·AX 산학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심화 과정을 지원하고, 중진공 부산경남연수원은 AI 업무 자동화·불량 예측·품질 검사 분석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맡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창원시

#### 올해 전기 이륜차 706대 보급

창원시가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17일 '2026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1차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목표는 총 706대로 전년 대비 6% 늘었으며, 투입 예산은 총 11억 1200만원이다. 1차 공고에서는 이 가운데 200대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유형과 연비·배터리 용량·등관 능력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당 최대 지원액은 일반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공유형 160만원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